

# 해외의약뉴스

당뇨약 메트포르민은 일부 환자에게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개요

갑상선 기능저하 및 갑상선 자극 호르몬 저하와 관련 있는 약물

## 키워드

메트포르민, TSH(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술폰닐 요소(sulfonylurea)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약물인 메트포르민은 갑상선 기능저하 환자들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TSH)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록 이 연구에서 인과관계가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진은 낮은 TSH(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심장 질환 및 골절과 연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된 연구에서, 위의 질환이 정상 갑상선 기능을 가진 군에서는 연간 322건이 발생하는데 비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저하증을 가진 환자에서는 495건 발생이 있었다고 CMAJ(캐나다 의사협회 저널)에 9월 22일 발표 된 보고서는 결론을 내렸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 중에서, 당뇨병 치료를 위해 술폰닐 요소(sulfonylurea)를 복용한 환자들에 비해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환자들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TSH) 저하의 위험이 55% 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몬트리올 맥길 대학 종양학과의 Laurent Azoulay 박사는 저널 보도 자료에서 "이 장기간 비교 연구의 결과는 메트포르민의 사용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중인 환자에게 TSH(갑상선 자극 호르몬) 혈중 농도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고 말했다.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환자 중에서 TSH(갑상선 자극 호르몬) 저하의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감안 할 때, 추가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영향의 임상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Azoulay는 덧붙였다.

두 전문가는 연구결과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동의하였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질문은 '감소된 TSH(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농도가 임상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가?'입니다." 라고 뉴욕 Mount Sinai Beth Israel의 프리드만 당뇨병 학회의 당뇨병 관리 프로그램 책임

자인 Gerald Bernstein 박사는 말했다.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고, 갑상선 저하를 갖고 있으며 갑상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약을 복용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중적인 임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혈중 갑상선 호르몬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어떠한 측정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 데이터가 TSH(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 이유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Bernstein은 말했다.

뉴욕시 Lenox Hill 병원의 내분비과 Minisha Sood 박사는 “TSH(갑상선 자극 호르몬) 농도에 메트포르민이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TSH(갑상선 자극 호르몬) 농도 저하가 환자들에게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다른 합병증의 발병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여부도 불분명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메트포르민은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통해 혈중의 포도당 농도를 감소시킨다. TSH(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대한 이 약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진은 25년 동안 메트포르민과 또 다른 당뇨병 약물인 술폰일 요소(sulfonylurea)를 복용한 74,000명 이상 환자들의 축적된 데이터를 조사했다.

■ 원문정보 ■

[http://www.nlm.nih.gov/medlineplus/news/fullstory\\_148505.html](http://www.nlm.nih.gov/medlineplus/news/fullstory_148505.html)